‘500만원 돈 상자’ 인사청탁용?

50대 도서관 직원, 구의원에 보내려다 옆집으로 잘못 배달

지난달엔 구청 공무원에 건낸 혐의도

남부경찰, 계좌추적·통화내역 등 수사

‘인사 청탁용’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돈상자가 광주시 남구의원이 사는 아파트의 옆집과 남구청 공무원에게 잇따라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남부경찰은 24일 남구의회 A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한 광주 모 도서관 기간제 계약직원 이모(여·52)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사 청탁을 위해 광주시 남구 주월동 A의원의 집에 현금 500만원과 사골이 든 송이버섯 상자를 건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오후 8시께 아파트 경비원 임모(64)씨를 통해 A의원에게 돈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주소를 착각해 문제의 돈상자가 A의원의 옆집으로 배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0일에도 남구청 공무원 B(여·35·7급)씨에게 취직 부탁과 함께 귤상자에 현금 500만원과 사골을 담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경찰에서 “받은 돈을 모두 다음날 반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17일 남구청이 공고한 ‘2010년도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채용’을 통해 의료급여관리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A의원과 B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도서관에서 근무해 온 이씨는 이달 말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이씨와 A의원 간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과 계좌추적에 나서는 한편,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사전에 인사 청탁과 관련한 상호 의견 조율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례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씨로부터 혐의 사실 상당 부분을 자백받은 상태”라면서도 “이씨가 공무원 B씨 등을 통해 구청 고위 관계자에게 금품전달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등 풀어야할 의혹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금품을 건넨 지 2주가 지나도록 A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자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경비원을 찾아가 돈이 제대로 배달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씨는 “상자가 잘못 배달됐다”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경비원은 “돈 주인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승강이를 벌이다 서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수사를 받게 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4일 광주남부경찰에 압수된 현금 500만원과 사골이 든 상자에 대해 수사 담당 경찰관이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동광주 나들목 폐쇄 모르고 헤매다…

추돌사고 60대 숨져

지난 23일 밤 10시께 호남고속도로 서울방향 문흥나들목(73㎞ 지점) 진입로에서 50m 떨어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L(61·광산구 우산동)씨의 승용차가 뒤따라오던 K(50)씨의 카니발 승합차와 추돌, 승용차 운전자 L씨가 숨졌다.

경찰은 “서울방면으로 가는데, L씨의 승용차가 편도 2차선에 정차돼 있었다.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했다”는 K씨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99엔 쥐꼬리 수당’ 규탄 확산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 “일본은 사죄하라”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로 끌려가 노역에 시달렸던 광주·전남 출신 근로정신대 할머니 7명에게 1인당 99엔씩의 ‘쥐꼬리’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한데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회원 등 20명은 24일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1인당 99엔을 지급한 것은 또 한 번 피해자들을 농락한 처사”라며 “모욕적인 보상을 정면 거부하며, 일본 정부는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에서 상경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78) 할머니는 “지난 1964년부터 1년 넘게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다. 어릴 때 일본 애들한테 ‘더럽다’라는 얘기를 듣고 온갖 수모를 당하며 일했는데, 99엔이 웬 말이냐”며 “일본은 사죄하고 연금을 돌려달라”고 울부짖었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굴욕적인 보상 철회는 물론, 한일협정문의 전면 공개를 요구한다”면서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전범기업에 인공위성 발사 용역권까지 내준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아들 軍 자살 조작’ 80대 노모에 40년만에 “2억원 배상하라” 판결

광주고법 민사1부

수류탄 사고로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을 잃고도 ‘군(軍) 자살자 가족’의 멍에를 썼던 80대 노모에 대해 법원이 40년 만에 억대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선재성)는 24일 군 부대 사고로 숨진 정모(사망 당시 22세)씨의 어머니 윤모(8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유족 보상금은 물론,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의 명예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윤씨와 숨진 윤씨 남편에게 각각 8천만원, 4명의 형제에게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1969년 8월 3일 경기도 연천의 한 보병부대에서 수류탄 폭발사고로 숨졌다. 그러나 부대 측은 당시 사건경위서를 통해 ‘정씨가 군복무에 대한 염증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사건을 조작했다.

그러나 정씨의 자살을 납득할 수 없었던 유족들은 지난 2003년 8월 군 부대에 재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여러 정황상 조작된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 육군본부는 2006년 3월 정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했고,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 6월 1심에서 5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참 〈7988〉 김종두

목욕탕 사우나실서 40대 숨져

24일 새벽 3시10분께 여수시 모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김모(44)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남성은 이날 0시께 목욕탕에 들어갔으며, 복부에 2도 화상을 입은 것 외에는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성폭행 하려다 남친에 걸려 혼쭐

쌍나팔

○…심야에 홀로 귀가 중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이 집 앞에서 기다리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와 격투 끝에 붙잡혀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강모(24·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24일 새벽 3시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H고시원 인근 골목길에서 P(여·20)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

○…강씨는 P씨가 홀로 골목길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갔으나 집 앞에서 P씨를 기다리던 남자친구 L(20)씨와 마주쳤는데, L씨는 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목을 다쳐가면서도 강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

○…경찰은 강씨를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연말연시 해외·국내 여행객 ‘북적’

4일 황금연휴…항공권·콘도 ‘예약 끝’

회사원 이근선(32·광주시 남구 주월동)씨는 며칠 전 크리스마스 연휴(24일~27일)를 이용해 다녀올 수 있는 3박4일짜리 해외여행 상품을 어렵게 구했다. 4일간의 황금 같은 연말연시 연휴 기간을 이용해 가족들과 함께 동남아 관광을 가기 위해서다.

이씨처럼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1일~3일) 기간을 이용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외 여행 또는 국내 휴양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번 연말연시 연휴가 주말과 휴일을 낀 3일짜리 징검다리 연휴인데다 연·월차 휴가까지 이용한다면 최장 일주일 간 달콤한 휴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의 겨울방학까지 겹치면서 항공권 예약을 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해외 여행 ‘붐’이 일고 있다.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때아닌 연말 특수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이달 중순 현재 해외 여행 상품 예약객 수는 8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가량 늘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동남아·중국·일본 등 근거리 해외 여행 예약객 수는 5만3천명에 불과했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국내선의 경우 24일~26일 사이 광주발 제주행 항공권은 이미 동났다. 광주시내 각 여행사에는 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 장거리 상품을 찾는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다.

엘도라도·금호·중흥 등 국내 유명 콘도도 연말연시 연휴 예약은 거의 끝난 상태다.

광주 C&C 여행사 관계자는 “20~30대들 사이에서는 개별일정으로 떠나는 자유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었고, 가족 단위에서는 단거리인 태국·필리핀 등 동남아 패키지 상품을 많이 찾았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